

RAONATTI

지구마을방범대 1월 보고

서울지역 지구마을방범대
한주은, 홍지영, 홍수현, 권혁민, 전은아

면생리대 발송!



지구마을방범대는 최종목표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작한 100개의 면생리대와 친환경 미생물 비누, 생리대 사용법 책자가 들어있는 소포를 캄보디아로 발송했습니다.

면생리대 도착!



그렇게 지구마을방범대가 보낸 소포가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YMCA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 YMCA 관계자분들이 추후 슬럼가 여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អរគុណ ច្រើន! (크메르어로 감사합니다)

지구마을방범대X움 환경 토크콘서트



지구마을방범대는 서울지역 팀 '움'과 <작은 변화를 큰 변화로>라는 이름으로 환경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환경 인플루언서 홍다경님, 더피커 대표 송경호님이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엔 소감을 종이비행기에 써서 날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

활동소감

홍지영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니 팀원들 모두 힘들고 지친 상태였던 것 같다. 더욱이 1월에는 서울지역 움 팀과 협업하는 토크콘서트도 계획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진행할 토크 콘서트를 위해 움팀과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그 결과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지었다. 또한 토크콘서트의 제목에 걸맞게 '작은 변화가 주는 큰 변화'에 대해 진심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대학생들이 주최하는 소규모 행사에 많은 분들이 응답해주신 것을 보며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권혁민

우리의 마지막 프로젝트, 토크 콘서트를 1월의 마지막 주에 끝내 기분이 좋았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나의 주된 업무, 마케팅을 하면서 마케팅의 전반적인 업무와 책임감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마케팅이 잘 되어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원데이 클래스와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비교하면서 깨달았다. 꼭 최종 보고회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고 싶다.

한주은

토크콘서트까지 마무리 하며 정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게 실감이 났다. 지금까지 계획을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완성해왔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항상 친구들이 열심히 해줘서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달성해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간사님들과 캄보디아 사람들의 도움으로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게 기여한 것 같아 뿌듯하고 스스로 자랑스럽다.

홍수현

이번 달의 가장 큰 일정은 토크콘서트였다. 다른 팀과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갔다. 한 행사를 전반적으로 기획해 본 것은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일정부터 섭외, 자리 배치, 소품 하나까지도 모두 신경써야 했다. 또 토크콘서트의 엠씨도 맡게 되었는데, 많은 도움과 철저한 준비가 있어 성황리에 프로젝트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연사님들의 강연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큰 감동을 받기도 했다. 특히 토크콘서트가 끝나고 난 후, 참여자 분들의 감사 디엠을 받았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사람들과 우리의 뜻을 함께 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였지만, 도리어 스스로 많은 성장을 한 것 같다.

전은아

1월에는 드디어 우리가 만들었던 면생리대를 택배 보내면서 우리의 장기간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함께했다. 매듭담게에 다다르며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있었는데 움팀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준비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다섯명의 대학생 프로젝트에서 멈추지 않고 전문성을 담은 대화의 장을 열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응해준 것을 보며 많은 뿌듯함을 느꼈다.